

자료 5. 통폐합 1, 2차 질의서
와 답변서

景園大學校 總同門會

문서번호 : KW-2011-20

날 짜 : 2011년 2월 15일

발 신 :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수 신 : 경원대학교 총장

참 조 : 경원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제 목 :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합에 대한 1차 질의서

30년의 역사를 이어온 경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원대학교 이길녀총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합에 따른 여러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1차 질의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현재 까지 진행되어온 통합 과정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2. 향후 진행될 절차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3. 재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교명과 본교의 위치를 알려주시고 그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4. 통합 추진 위원회의 책임자와 구성원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재단에서 구상한 통합에 따른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의 위상과 권한, 역할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천재단과 경원재단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된 자산 및 자금의 이동에 대한 회계상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본 질의에 답변은 발송일(내용증명)로 7일 이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본 질의는 공개질의로 질의 내용 및 재단측의 답변은 경원대학교 10만 동문과 재학생,성남시민과 공유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문서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내용증명 송달합니다.
- 경원대학교 총동문회는 모교의 발전을 위해 통합에 따른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 조 규 호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통합대책위원회 위원장 탁 귀 환

제 목 :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합’관련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1.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통합과정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현재까지 양 대학에서 진행된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09년12월 양교의 재단법인인 학교법인 가천학원과 학교법인 경원학원을 통합하여, 가천경원학원이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4월부터 9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경쟁력 제고자금(통합지원금) 1억3천만원 등을 투입하여, 교과부 관련 컨설팅기관인 능률협회에 의뢰, 합리적인 통합방안과 절차에 관한 기본설계를 획득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14일 양 대학의 총장께서 통합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한 후 연말연시 많은 행사와 방학인 관계로 약 2개월 동안은 통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는 2011년 2월 8일부로 협약서에 명시된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을 재단이사 및 양교 교무위원 중에서 위촉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뒤 받침하기위해 동 위원회 산하에 수석부총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장 관련부서 처장들을 주축으로 하는 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 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통합 작업을 담당 하는 3개의 기구(발전계획실무위원회, 학사편제실무위원회, 행정조직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우선 학사편제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대학교 학사모형 구축에 대한 기본원칙과 유사/중복학과에 대한 연구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전계획실무위원회와 행정조직실무위원회는 현재 위원 섭외 중에 있으므로 섭외가 끝나는 대로 위원을 위촉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향후 진행될 절차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 1) 경원대학교 - 가천의과학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완료)
- 2) 통합추진위원회 설치(완료)
- 3) 통합실무추진단 및 산하 기구 구성(완료/추진 중)
 - 발전계획실무위원회, 학사편제실무위원회, 행정조직실무위원회
- 4) 통합원칙 수립
 - 통합추진위원회
- 5) 전체교수, 직원회의 개최
 - 경원대학교 - 가천의과학대학교 통합 추진 현황 보고
- 6) 구성원 대표 간담회 개최 : 동문, 학생, 교수, 직원
 - 경원대학교 - 가천의과학대학교 통합 협조 당부
- 7) 통합추진위원회 개최
 - 통합대학교 발전계획(특성화), 학사모형, 행정조직 심의
- 8) 구성원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동문, 학생, 교수, 직원 등
- 9) 교무위원회 개최 및 통합(안) 심의
- 10) 대학평의원회 개최 및 통합(안) 심의
- 11) 통합 승인 신청서 작성
- 12) 통합 합의서 서명(경원대학교 -가천의과학대학교 총장)
- 13) 법인 승인 요청 및 이사회 개최 심의, 확정(이사장 서명)
- 14)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3.재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교명과 본교의 위치를 알려주시고, 그 결정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의 위치는 이미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의 소재지인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산65 경원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교명에 대해서는, 10년 후, '저출산' 시대

에 대비한 외국학생 유치를 시야에 넣은 글로벌 경쟁력까지를 감안하여, 후회하지 않을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교명을 정할 방침입니다.

4. 통합추진위원회 책임자와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사회) : 송석구 가천의과학대학교 총장

위 원 : 김 원 경원대학교 수석부총장

김완희 경원대학교 교무처장

윤원중 경원대학교 기획처장

변광화 경원대학교 총무처장

이 항 가천의과학대학교 기획처장

서광석 가천의과학대학교 교무처장

양승현 가천의과학대학교 사무처장

이상우 가천경원학원 상임이사

간 사 : 김덕겸 가천경원학원 법인사무국장

5. 재단에서 구상한 통합에 따른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의 위상과 권한, 역할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대학교 총동문회는 경원대학교에 대하여 뜨거운 애정을 갖고, 어떤 조직보다도 모교발전을 염원하고 열망하는 최고의 '지원군'으로 기꺼이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통합대학에서도 최고의 '지원군'과 굳게 손을 잡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나가는 데 매진하고자 합니다. 총동문회에서도 미래 경쟁력을 위하여, 그리고 모교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자극 및 촉매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6. 가천재단과 경원재단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및 자금이동에 대한 회계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1년여 전에 학교법인 가천학원과 학교법인 경원학원이라는 두 개의 재단이 하나로 통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 대학은 회계 상 분리 운영되었고, '자산 및 자금이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

“기본을 바로 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더불어 함께, 스스로 힘으로, 경원사랑의 마음”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번지 경원대학교 아를관 620호 총동문회실

전화 : 031-750-5617 / 홈페이지 : www.kw4u.co.kr / E-mail : kyungwon4u@hanmail.net / 사무총장 노관호(010-3898-3633)

문서번호 : 총동문회 11-24

시행일자 : 2011. 3.14.

경 유 :

수 신 : 경원대학교 총장

참 조 : 대외협력처장

접	일자	년 월 일	결		
	시간	:	재		
수	번호		공		
처리부서			람		
담당자					

응 신 기 일 : 2011 년 3 월 21 일

제 목 :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의 통합에 대한 2차 질의서

30년의 역사를 이어온 경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원대학 이길녀 총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동문회는 통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추가되어지는 문제에 대한 2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와 재단측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총동문회는 통합추진위에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제안을 바랍니다.
2. 현재 구상되어진 학과 및 캠퍼스 운영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양교의 회계상 자료(재무제표 등)를 공개를 요구합니다.
4. 통합 후 학교발전 마스터플랜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5. 본 질의에 답변은 발송일(내용증명)로 7일 이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통합대책위원회 위원장 탁귀환

제9대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 조규호

<별첨>

- 학교 발전의 명확한 마스터플랜과 투명한 회계자료의 공개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본 동문회는 10만 동문을 대표하여 통합에 반대하며 그에 따른 법적 조치 및 성남시민과 동문, 재학생에게 통합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는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질의는 공개질의로 질의 내용 및 재단측의 답변은 경원대학교 10만 동문과 재학생, 성남시민과 공유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문서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내용증명 송달합니다.
- 경원대학교 총동문회는 모교의 발전을 위해 통합에 따른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을 지닌 대학



경 원 대 학 교



G2+N3 프로젝트
10대 시학 도약

수신자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

(경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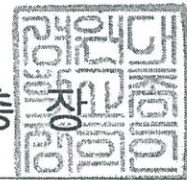
제 목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합관련 2차 질의에 대한 답변서

1.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의 모교 발전 노력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경원대학교 총동문회11-24(2011.3.14)호에 의거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와의 통합 관련 2차 질의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붙임 :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합'관련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2차 질의에 대한 답변서 1부 10매. 끝

경 원 대 학 교 총



수신자

담당 권병구	팀장 권병구	부처장 김한정	처장 김충식	부총장 이우중	수석부총장 김 원	총장 이길여	(/)
협조자	기획처장 윤원중						

시행 대외협력1500-94(2011.3.22) 접수 (2011.3 .)

우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 / <http://www.kyungwon.ac.kr>

전화 031-750-5825 전송 031-750-5666 / e-mail: kbk@kyungwon.ac.kr / 공개

제 목 :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합'관련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2차 질의에 대한 답변서

1. 총동문회는 통합추진위에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제안을 바랍니다.

먼저 학교발전에 대한 총동문회의 따뜻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합 추진 목적은 양 대학의 강점을 강화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현재 각 분과별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통합 구성(안)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동문회, 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통합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통합(안)이 구체화되면, 동문회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총동문회와 학교관계자와의 정례 모임을 통해 총동문회의 의견 및 정제된 발전적 제안을 통합추진위원회 및 통합실무추진단에 제출해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2. 현재 구상되어진 학과 및 캠퍼스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편제 및 캠퍼스 운영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 및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성 원칙 등 기본 방향과 그동안 기초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사편제

- 1) 정부의 '사립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준수하기 위하여' 통합 시, 유사학과 조정이 필요한 바, 양 대학의 유사학과 통합 예정
- 2) 적정 규모의 입학정원을 위하여 가능한 50명을 기본단위로 배정
- 3) 학교 특성화 정책에 부합한 학과를 선정하여 특화 예정
- 4) 학교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미래 유망 학과 신설 검토 (2개 학과 정도)

나. 캠퍼스운영 방안

1) 개요

통합 후의 캠퍼스 운영방안은 이미 알려드렸던 바와 같이 본교 (법인 소재지)는 경원대학교이며, 경원대학교는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이공계열, IT계열 및 미·음대가 어우러져 발전하는 초일류 유니버시티를 겨냥한 캠퍼스로 가천의과대학교는 가천의 대길병원, 뇌과학연구소 및 이길여암당뇨연구원 등이 중심이 되는 의대·의료·보건·약학·생명을 특성화한 캠퍼스로 운영되어 질 예정입니다.

2) 기본 방향

- 가) 통합대학교의 비전 달성을 위한 기능 중심의 조직 구성
- 나) 캠퍼스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설계
- 다) 결정의 신속성 및 학생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
- 라) 캠퍼스의 조직을 가능한 한 통폐합함으로써 조직의 슬림화 및 효율성 제고

3) 통합대학교 행정조직 구성(안)

- 가) (가칭) 성남캠퍼스 본부 조직으로 8개 처(기획, 교무, 학생, 입학, 연구/산학협력단, 총무, 대외협력, 관제) 설치(안) 검토 중
- 나) (가칭)인천캠퍼스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2개 처 또는 부 정도) 설치, 하지만 통합대학교의 안정적 착근을 위해 한시적으로 3개 처 1단(학사지원, 학생복지, 행정지원, 산학협력단(분단) 설치 검토(2년 정도) 중

다. 기타 사항

양 캠퍼스의 신속한 행정 처리와 원활 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 및 화상회의시스템 도입 추진

3. 양교의 회계 상 자료 (제무제표 등)를 공개를 요구 합니다.

정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 홈페이지에 각 대학의 예산/결산 내용이 공개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통합 후 학교발전 마스터플랜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통합 후 학교발전에 대한 계획은 2010학년도부터 학내의 여건 분석 및 통합의 필요성, 통합 후 학교발전 방향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도 “학교발전계획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을 목표로 제기되고, 논의된 주요 사항들과 통합대학교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하는 사항들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통합대학교 마스터플랜 1부 7장. 끝.

자료 6. 통합추진에 대한 노동 조합 입장 회신



전국대학노동조합경원대학교지부

수신자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장(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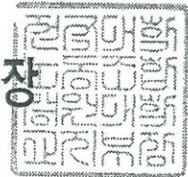
(경 유)

제 목 통합 추진에 관한 의견 회신

1.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총동문회 11-26(2011.3.25)회의 관련,
3. 위회의 관련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경원대학교 총동문회가 의뢰한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합 추진에 관한 의향서에 대하여 불응의 자료와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통합 추진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1부. 끝.

전국대학노동조합경원대학교지부장



수신처

담당
유양훈
협조자

사무국장
양은희

지부장
이종성

시행 경원노조2011-012 (2011.03.31)

접수

(2011. .)

우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

/ 지 부 장 이 종 성 / e-mail : josulee@kyungwon.ac.kr

전화 031.750.5540~1

전송 031.750.5542/

/ 사무국장 양 은 희 / e-mail : yeh@kyungwon.ac.kr

통합추진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의 통합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1. 통합에 대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하여

- 대학의 통합은 대학의 안정적인 발전이 담보되고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함. 이는 학교가 대내외 언론에 이미 공개한 내용(붙임 자료 참조)임.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투자계획은 물론이고, 통합대학의 학사편제와 행정 조직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 전면적인 자료의 공개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노동조합은 투명한 자료 공개와 이를 토대로 구성원간의 합의를 거쳐 통합방안을 논의 할 것을 학교 당국에 거듭 촉구하면서 현재와 같이 일방통보식의 통합작업을 진행한다면 현재의 대학 통합을 비민주적 졸속 통합으로 규정하고 통합자제를 제고하여야 함.

2. 통합 관련한 노동조합의 조건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통합이후 낙하산 인사 및 조합원의 부당전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이후 캠퍼스간의 인사교류는 필요시 해당 조합원 및 조합의 동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또한, 노동조합은 금번 2011년도 임금교섭에서 수도권에서 하위권인 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수준이 더욱 열악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3. 통합에 따른 논의의 장 마련에 대하여

- 대학의 통합은 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뿐 만 아니라 경원대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교직원들의 생전절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이에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만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판단됨.

4. 통합에 있어 노동조합이 선행한 활동에 대하여

- 2010.6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관련 설문조사 진행
- 2010.7월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통합서명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방적·줄속적 통합에 반대하는 조합원 서명을 진행한 바 있음.

2011. 03. 31

전국대학노동조합 경원대학교지부

자료 7. 통합추진에 대한 교수
협의회 의견서

경원대학교 교수협의회

461 - 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 / 전화번호 5490

(직인생략)

문서번호 : 교협 제11-03-31

시행일자 : 2011. 03. 31.

수 신 : 총동문회

참 조 :

제 목 :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 통합 추진에 대한 의향서'에 대한 경원대학교 교수협회의 의견

1. 학교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에서 보내오신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 통합 추진에 대한 의향서(문서번호: 총동문회 11-25)'에 대한 경원대학교 교수협회의 의견 첨부합니다.

2011. 3. 31.

경원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 통합 추진에 대한 의향서’에 대한 경원대학교 교수협회의 의견

1. 통합에 대한 귀 단체의 기본적인 입장을 문의합니다.

학교 측은 교수들에게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적도 없고, 견해를 묻거나 동의를 구해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렇게 통합과 관련하여 정보가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통합에 대한 입장을 갖기가 매우 힘듭니다. 다만, 일반 교수들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폐쇄적으로 추진되는 통합이 학교의 종합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2. 통합에 있어 귀 단체가 생각하시는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경원대학교는 경원전문대학과의 통합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대학발전의 핵심 요소인 교육 및 연구 여건의 향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줄속’ 통합은 그 해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성원들이 합의의 해 나가면서 투명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소문만 무성한 교명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경원대학교’라는 이름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경원인들이 피땀흘려 만들어 놓은 인지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를 브랜드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 액수가 엄청나리라고 예상되는데, 이를 버리고 새 이름을 사용한다면 학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손실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교명을 바꾸는 것은,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학교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졸업생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모교를 뺏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교명변경은 절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본 동문회는 귀 단체와 통합에 따른 문제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장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교협은 동문회나 직원노조와는 달리, 어떤 조직적인 구조를 가진 단체가 아니라 개인들의 자유로운 모임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논의의 장'의 성격에 따라 교협의 전부 혹은 일부가 자기 스스로 동참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안된 '논의의 장'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동참 여부를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4. 기타 통합에 있어 귀 단체에서 선행하신 활동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통합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본 교수협의회는 그 당시 '줄속'통합을 통해 야기되리라고 예측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 '줄속성'에 반대한 바 있었는데('백서' 참고) 결국 통합이 '줄속'으로 이루어져 그 문제점들이 그대로 현실화되면서 현재 교육 및 연구의 여건에 큰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백서'의 내용 대부분은 현재 추진되는 통합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매우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료 8. 통합추진 일정표

당시재단측 통합 추진 일정표

경원대학교 부실 통합 추진 일정

일자	일정		동문회(대책위 대응)
4월 1일(금)	통합추진위원회 심의		
4월 5일(화)	교무위원회 심의	교무회의실	
	임시교무위원회 3시		
4월 8일(금)	교수/직원 설명회	오후 1시 영상 문화	
	동문회임원 설명회	오후7시 컨 벤션홀	
4월 11 일 (월)	총학 설명회	비전타워 멀티 미디어 어실	
4월 12일 (화)	교무위원회 확정	오후3 시	
4월 13일 (수)	통합 추진위원회 확정 (양교)		
4월 18일 (월)	대학 평의회 심의, 확정	오후4시 교 무회의실	
4월 27일 (수)	법인 이사회 심의, 확 정	이사회실	
4월 29일 (금)	교과부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기한 : 2011년 4월 29일(금)

자료 9. 총동문화 입장표명서

경원대 총동문회의 통합을 바라보는 입장

경원학원이 개교한지 벌써 30여년이 흘렀습니다.

진리, 창조, 용지의 이념을 안고 태어난 경원대학교는 성남 최초의 종합대학으로서 성남시민의 자랑으로 성장해왔으며,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교는 이제 어디를 가도 경원대학교 동문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과 긍지의 상징이 될 만큼 눈부시게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경원학원이 걸어온 지난 30여년 세월동안 한결 같이 헌신해온 학생, 교수, 교직원, 학부 모, 그리고 학교당국의 노력의 결실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각계에 진출하여 말없는 애정으로 모교를 응원하며 지켜온 동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경원가족들과 지역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합추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통합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는지 6개월이 지났고, 통합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하여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 사이에 MOU가 체결되는 등 통합은 기정사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문회에서는 학교 당국의 경원학원 구성원들과의 협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통합 진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원학원을 만들고 키워온 것이 학생과 교직원, 교수, 학교당국의 노력 속에서 가능했던 것처럼 대학은 재단의 소유가 아니라 경원가족 모두의 것입니다.

두개 대학의 통합이란 학교 명칭문제 뿐 아니라, 향후 학교 발전의 청사진을 좌우하는 문제이며, 미래에 이 학교에 들어올 후배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경원대학교에 청년시절의 추억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은 당연히 경원대학교의 미래 운명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당국에 묻습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두개 대학의 통합은 단지 물리적인 통합에 의한 양적, 외형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개 대학이 걸어온 상이한 역사와 전통, 각자 다른 개성과 문화, 조직과 시스템의 화학적 결합을 통한 계승과 발전 그리고 전환을 통한 내, 외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고 경원 발전에 절박한 과제라면 경원 학원의 제 주체들이 합의하고 화합할 수 있는 논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야 통합이 가져올 효과는 무엇이고 통합으로 인한 후과는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통합의 방법과 절차, 통합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진행되는 통합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 강제와 강권에 의한 흡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동문회는 작금의 과정을 지켜보며 매우 깊은 우려를 안고 신중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동문회는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진정한 학교 발전을 위한 통합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원가족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원가족 모두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통합이 될 수 있게 만듭시다.

동문회는 그 길에 경원가족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경원대학교 제 9대 총동문회 회 장 조규호

경원대학교 통 합 대 책 위 원 장 탁귀환

자료 10. 학생 총회 결과

자료7> 학생 총회 결과

<학생총회 결과 보고>

1. 일시 및 장소

- 2011년 4월 19일 16:00 경원대학교 종합운동장

2. 개회 선포

- 재학인원 15,422명의 1/10인 1,542명 이상인 (경원대학교 총학생회칙 2장 학생총회 13조(의결) 1항 학생총회는 회원의 1/100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2,574명 학우의 참여로 개회 선포

3. 경과보고

- 학교측은 4월11일(월), 17:00 국제어학원 국제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합 설명회를 실시

통합에 대한 긍정적 효과의 설명이 끝나갈 즈음. 모든 학우들의 관심사인 교명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학생대표들과 협의하겠다.'

교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됨 . 하지만 이때까지 협의체에 대한 논의는 전혀없는 상황

- 다음날인 4월12일(화) 학생대표 중앙운영위원회가 긴급소집, 다섯분의 처장님들과 30여명의 중앙운영위원회의 통합 및 교명대책 1차 회의가 시작 됨

학교측은 교명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음

학생대표측은 끊임없이 '경원'에 대한 강점과 가치, 비전에 대해 제시하였지만 학교측은 교명변경에 대한 효과와 비전을 제시함

이에 중앙운영위원회 내부에서 교명수호학생대표단이 조직되었으며 교명수호 학생대표 일동은 매일 새벽2시에서 3시까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경원'을 지키기 위해 연일 밤샘 회의를 함

- 다음 날 4월13(수) 는 각 단과대학 내 학과학생회장들이 모여 회의를 한 후 학교측과 다시 2차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평행선

- 다시 다음날 4월14일(목) 학생대표의 '경원'의 의지와 학교측의 교명변경에 대한 의견의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회의를 결렬 후 퇴장

학생대표측은 비상확대운영위원회 개최를 의결 한 후 4월15일(금) 비전타워 영상문화관에서 비상확대간부운영위원회를 개최

하지만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처장단의 회의 입장으로 회의 결렬

- 학생대표단과 학교측의 마지막 회의라고 할수 있는 4월17일(일). 결국 이 날 까지도 교명은 공개되지 않음

교명은 그 다음날인 4월18일(월) 교무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는 확답을 듣게 됨

- 4월18일 (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IT대학 부학생회장, 한의과대학 학생회장이 '전례없는 학생대표의 교무위원회 참여'라는

타이틀로 회의에 참석하여 '경원'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와 열망을 혼신을 다해 전달하였지만

투표결과, 경원-1표, 경원가천-3표, 가천경원-2표, 가천-26표로서 교무위원회의 회의결과 '가천대학교'로 통합교명 결정

4. 학생총회 투표 결과

경원대학교 통합교명변경에 따른 찬성,반대 개표 결과

투표자수	찬성	반대	무효
2,574	33(1.28%)	2,488(96.66%)	53(2.06%)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전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원대학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원대학교 제27대 총학생회 -

자료 11. 교수협의회 성명서

성명서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합 및 교명개명을 둘러싸고 교내에서 일고 있는 갈등에 관하여 본 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힙니다.

현재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측이 통합 및 교명개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명개명과 같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하여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 학교구성원들의 견해를 수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교명개명과 관련해서 학교측이 교수들의 견해로서 모은 것은 지난주 초의 시점에서 보자면 32명의 보직교수로 구성된 교무위원회의 표결(4월 18일)을 거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수협의회는 교무위원회의 표결 결과(경원대 1표, 가천대 26표, 기타 5표)를 접하고 나서, 이것이 교수들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 교수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설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어이없게도 설문조사지 대부분을 무단으로 수거함으로써 결국 교수협의회의 설문조사를 무산시켰습니다. 이어서 학교측은 통합과 교명개명에 대한 동의서에의 서명을 교수들에게 종용하였는데, 이것이 올바른 방식의 견해 수렴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학교측이 그 동안의 추진과정이 합리적이었다고 자신한다면 교수협의회의 설문조사를 무산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도와주고 격려했어야 마땅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학교측은 교수들의 견해를 투명하게 수렴하는 데 착수해야 합니다.

교명개명의 경우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교수와 직원이라기보다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입니다.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는 마치 이름처럼 영원히 붙어 다니는 속성이며, 따라서 교명의 변경은 이들의 평생의 삶에 작용합니다. 따라서 교명개명에 대해서만큼은 학교측이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견해를 무조건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문들과 재학생이야말로 학교측이 가장 철저히 배제한 대상입니다. 2574명의 학생들이 모인 지난 주 화요일(4월 19일)의 비상학생총회에서 행해진 교명개명에 대한 투표에서 무려 2488명(96.7%)의 학생들이 교명개명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자신들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한 것은 학교측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학생총회는 압도적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의 움직임이 최근 몇 년간 보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시험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나타내는 바가 큼니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이러한 모아진 견해를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줄곧 교명개명을 반대해온 총동문회나 동문들 일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측은 총동문회의 견해를 존중해야 마땅하며 아울러 동문들 전체를 상대로 한 의견수렴에 당장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명개명은 결코 성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통합하여 국가명을 바꾸는 경우를 한 번 가정해 봅시다. 반드시 긴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국가의 이름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리 몇 명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가 이와 같은 경우와 과연 얼마나 닮습니까. 또한 교명개명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큼니다. 만일 '경원'이라는 이름을 버린다면 수십 년 동안 '경원'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온 무형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은 분명한데, 이것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더라도 결코 빠른 시일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문제의 핵심이 통합이나 교명개명에 찬성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있다기보다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통합이든 교명개명이든 모두가 따라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모두의 견해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사안에서 소수의 견해가 독단을 부린다면, 이는 반드시 큰 재난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2011년 4월 26일

경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자료 12. 교명 사수 결의대회
자료 및 구호 등

경원대학교 교명사수결의집회

보낸사람 : 경원대 총동문회 11.04.25 22:54 수신차단

이 메일은 한메일로부터 발송된 메일이 아닙니다. 보낸이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자세히 보기]

경원대학교 교명사수결의집회

친애하는 경원대학교 동문여러분 !!

지금 모교는 인천 소재의 가천의과학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천의과학대학은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체제로 일반적인 의과대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학생수도 약 3,500명으로 경원대 16,000명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과수도 경원대 60개과 가천의과학대 14개과로 차이가 있으며 길대학과 통합하여 생긴 학교로 역사적 정통성도 매우 약한 학교입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재 구성원들과 협의나 구체적 논의 없이 일방적, 비민주적으로 일관하여 진의를 의심케 하더니 결국 학교명을 경원대에서 가천대로의 개명을 공표하였습니다.

개명을 하는 당위성으로 이번 통합은 제2의 창학이므로 개명이 불가피 하다는 등 이유를 들며 80억은 할머니의 호를 사용 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천이라는 뜻은 이길여총장의 호입니다.
경원대학교가 사립대이긴 하지만 개인 소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립자의 뜻도 있지만 재단이 바뀔 때 마다 교명이 바뀐다면 어떻게 학교를 다니며 동문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

교명이 개명되면 경원대는 폐교 되는것과 같습니다. 어디에서도 경원대의 흔적을 찾을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차지하고 있는 추억과 젊음의 열정이었던 학창시절을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이대로 경원대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경원대를 통째로 삼키려는 자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학내 민주화 투쟁의 선봉이었던 동문 여러분 다시한번 가열찬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모교를 지킵시다. 지금 학교는 교수, 직원 특히 재학생들도 반대 하지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10만 동문이 지켜야 합니다.

동문의 의지를 보여줄 시간을 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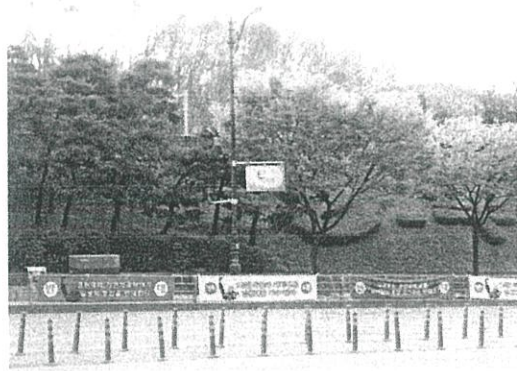
2011년 4월 28일 오후 6시입니다.
장소는 모교 비전타워 앞 계단입니다.

많은 동문 이 참여 하여야 우리의 의지를 관철 시킬 수 있습니다.
당일 마스크 준비되시는 동문은 마스크에 X 표시하여 지참 하시고, 준비가 안 되시면 총동문회에서도 준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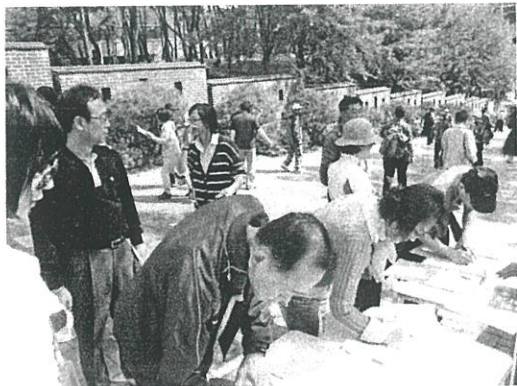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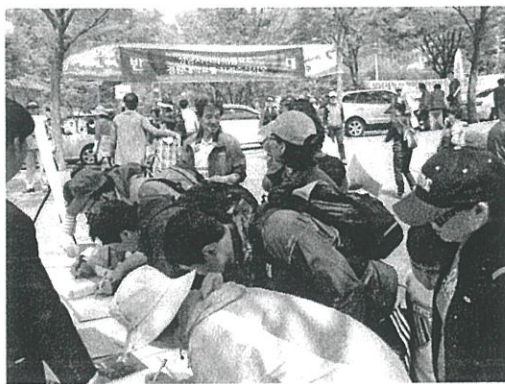
가열찬 의지로 교명을 사수하자 !!
경원대학교 교명 사수 개명 결사 반대 !!

<< 자료 7>>

- 집회사진



- 서명운동 사진



현수막

경원대학교의 교명을 유지하라

성남의 종합대 경원대학교의 교명을 변경하지 마라

설립자도 아닌 대학총장의 호를 교명으로 쓰지 마라

총장의 호로 교명을 바꾸려거든 사퇴하고 인천으로 돌아가라

경원대학교 교명을 개명하지 마라

10만 동문은 경원대학교 교명 개명을 반대 한다.

30년 역사의 경원대학교 교명을 일방적으로 개명하지마라

반 14만 동문과 재학생은
경원대를 사수 한다 **대**

반 경원대와 가천의과학대의
일방적 통합을 반대한다 **대**

반 교과부는 경원대의 교명
유지없이 통합 승인하면 안된다 **대**

반 동통운운하는
김원 수석 부총장은 사퇴하라 **대**

경원
대학교
사수

김원
퇴진

개명
반대



기사입력시간 : 2011년 05월23일 [18:00:00]

성남시, "경원대 학교이름 왜 바뀌어" 반발

시장명의 성명 "성남시 대표 대학 명칭변경 부당"

2011년 05월 23일 (월) 19:56:34

김길수 기자 ✉kkgs4321@ilgankg.co.kr